

# 韓國 服飾史의 方法

—30年の 回顧를 檢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장식미술학과  
교수 이 경 자

## 目 次

I. 序 言	V. 服飾史의 解釋-2
II. 服飾史의 特性	VI. 結 言
III. 服飾史의 史料	ABSTRACT
IV. 服飾史의 解釋-1	

## I. 序 言

내가 복식사 연구에 뜻을 둔 지 어언 30년을 넘었다. 한 가닥 감회가 절로 인다. 30여 년 전 그 때만 해도 우리 학계는 초창기나 다름이 없었다. 그 형편은 다음 글에 잘 나타나있다.

한국 복식사는 아직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다. 일제시대 李如星의 “朝鮮服飾考”가 있으나, 古代에 한하였고, 조선 총독부의 “朝鮮의 服裝”은 1930년대 민속학적 보고서로서 귀중한 것이지만, 역사적인 면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해방 후 필자의 “李朝前期服飾研究”(1963)와 기타 논문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보지 못한 通史, 圖錄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하다.<sup>1)</sup>

사정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나 같은 初學者는 미개척 분야에 도전한다는 의욕이 앞서는데,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야 할지, 허둥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는 참 다행스럽게도 훌륭한 스승을 만나 이 첫 고비를 편하게 넘겼다. 학교에서 가르침을 주신 柳喜卿 선생님, 학위논문을 지도해 주신 金東旭 선생님, 어느 때건 教示를 아끼지 않으셨던 石宙善 선생님이 그 분들이다.

더구나 세 분의 학문적 배경이 다르고 학문하는 方法 또한 판이했던 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柳 선생님은 服飾實技를 바탕으로 한 복식 교육의 경험이 풍부했고, 金 선생님은 國文學과 民俗學에서 출발하여, 문헌 탐색과 문헌 고증에 탁월했으며, 石 선생님은 실물 수집과 고증에 정진했던 것 등, 세 분 學風이 서로 달랐던 것이, 나로 하여금 복식사의 여러 측면을 깨우치고, 다양한 方法論을 생각해 하는 길

1) 金東旭, 『韓國服飾史』, 『韓國文化史大系』 4. (서울: 高麗大 民族文化 研究所, 1970), p.21.

잡이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 세분을 師事하면서, 이 분들의 方法論의 特長을 아우를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품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1970년 내가 학계에 처음 발표한 논문, “女子 저고리 小考”(가정학회지 No. 8)에 깔려있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이 첫 논문은 실물 고증과 문헌 고증을 병행한다는 것 말고는 方法論의 체계적 고찰은 엄두도 내지 못한 것이었다. 당시 나의 학문 수준에 비추어서는 당연한 일이었겠으나, 의욕만 앞섰지, 이를 제대로 소화해 내지를 못한 것이다.

이처럼 方法論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은, 이 뒤 논문을 쓸 때마다 되풀이되곤 했고, 지금껏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남아 있다. 더구나,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내가, “복식사란 무엇인가”, “복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後學들 앞에서 앞장서서 논의해야 할 처지가 되고 보니, 그 숙제의 무거움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方法論의 정립 없이 복식사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 한국 복식사의 새로운 전개를 위하여서는, 새로운 方法論의 전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자주 한다.

이 글은 평생 숙제처럼 남아있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생각해왔던 省察의 일단이다. 숙제 풀이에 필요한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다 망라한 것은 아니지만, 단편적인 이 글이나마, 앞으로 한국 복식사를 어떻게 전개할지, 다함께 생각하는 한 고투리가 되었으면 한다.

## II. 服飾史의 特性

모든 학문에는 그 학문 특성에 맞는 方法論이 있다. 복식사 역시 그 특성에 맞는 方法論을 정립해야 한다. 그렇다면 복식사는 어떤 학문인가?

복식사는 다음의 두 진술과 관련된 학문이다.

A. 이 지구상에서, 사람은 옷을 입는 유일한 동물이다.<sup>2)</sup>

B. 이 지구상에서, 사람은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유일한 동물이다.<sup>3)</sup>

학문의 영역을 따진다면 위의 진술 A는 복식학(社會科學), 진술 B는 역사학(歷史科學)에 속한다. 그러니까, 복식사는 복식학과 역사학, 사회과학과 역사과학의 접점에 있는 학문이다.

이 같은 복식사의 성격을 놓고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다.

첫째, 복식사는 “복식학으로서의 복식사”와 “역사학으로서의 복식사”라는 양면을 지닌다.

먼저 “역사학으로서의 복식사”를 보면, 복식사는 역사의 한 分科, 分類史의 한 분야이다. 복식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복식사는 민속·풍속사, 또는 넓은 의미의 예술사에 포괄될 수가 있다. 어느 경우건 “역사학으로서의 복식사”는 당연히 역사적인 方法을 쓴다. 그 뜻은 R. G. Collingwood의 다음 말로 요약이 된다.

### 1. 역사학의 정의 :

역사학은 일종의 조사 탐구다. 역사학은 사물을 발견한다.

2) 小川安郎, 「服裝原論」(東京: 光生館, 1979), pp.3~4.

3) 朴成壽, 「歷史學概論」(서울: 三英社, 1975), p.30.

그런 뜻에서 일종의 과학이다.

2. 역사학의 대상 :

과거에 이미 행하여진 인간 행동, res gestae (things done)

3. 역사학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증거의 해석으로 진행된다. (역사는 추리과학이다.)

4. 역사학의 목적은 무엇인가 :

역사학의 목적은 인간의 자기 인식이다.<sup>4)</sup>

위 인용에서 밑줄 친 부분 'res gestae'와 '인간의 자기 인식'을 각각 '과거의 복식 현상(clothing phenomena)', '인간의 복식행동 (clothing behavior)에 대한 인식'으로 바꿈으로서 우리는 "역사학으로서의 복식사"를 설명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복식학으로서의 복식사"의 의의는 무엇인가. 역시 M. Horn의 다음 말에 그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

역사가들의 方法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복식현상을 시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복식에 나타나는 규칙성이나 유동성의 반복을 주목함으로써, 우리는 사회 변동이 복식 양상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보다 잘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 현재의 복식 양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의 독자적, 자생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진화한 것이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그들에게 미치는 오늘날의 상황과 영향에 크게 좌우된다.<sup>5)</sup>

부연하자면 "복식학으로서의 복식사"는 ① 복식 현상을, ② 역사적인 方法으로 해석함으로써, ③ 복식 변화의 法則性을 찾으려 하며, ④ 현재 복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래 변화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복식사를 폐고는 복식을 바로 인식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복식사가 의류, Design 등 복식 관련 학과의 필수교과로 편성됨은 이 때문이다.<sup>6)</sup> C. W. Mills는 그 이치를 다음과 같이 단정해 말한다.

역사야말로 사회연구의 기본 축이며... 역사를 활용하지 않고는... 여러 문제를 올바르게 설명할 수가 없다.<sup>7)</sup>

이상에서 본대로, 복식사는 복식학과 역사학의 양면을 지닌다. 여기에서 복식사의 두 번째 학문 특성이

4) R. G. Collingwood, *The Idea of History*,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p.9.

5) M. J. Horn, *The Second Skin :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2n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68), Preface.

6) 이 점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같다. 미국의 경우는 李 京子, 『복식사와 복식교육』, 『韓國服飾史論』, (서울 : 一志社, 1983), pp.347~357 참조.

7) C. W. Mills,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London : Oxford Univ. Press), 강희경, 이해찬(공역) 『사회학적 상상력』, (서울 : 弘盛社, 1978), p.179.

파생한다. 그것은 복식학과 역사학의 엄청나게 많은 보조과학, 인접과학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역시 우리가 복식사의 方法論을 생각할 적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특성이다.

M. J. Horn은 그의 主著, *The Second Skin*에 “복식의 學際的 연구”라는 副題를 붙이고,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복식은 복합적 동기의 산물이다. 그 동기들은 모두가 상호 의존적이며, 육체적·심리적·문화적 여건의 소산이다. 따라서, 복식의 所要(need)와 實際(practice)의 객관적이고 만족스러운 분석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이론이 있어야 함이 명백하다.<sup>8)</sup>

그렇기 때문에, 복식 연구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학문분야와 관련된다.

(지금까지) 복식행동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다. 지난 50여년 동안 ... 초기의 저자들이 발전시킨 많은 이론들은 인류학과 역사가, 가정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들에 의하여 검증되고 있으며,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공동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있다. 복식의 본래 특성상 복식은 수다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sup>9)</sup>

이상에서 M. J. Horn이 지적한 복식학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식학으로서의 복식사”와 공통됨은 물론이다.

마찬가지로 역사학의 다양한 보조·인접과학이 “역사학으로서의 복식사”의 관심분야가 됨도 당연하다. 正統史學은 본래 역사학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바탕 위에서 성립된 것이지만, 正統史學의 方法論을 집대성한 E. Bernheim은,

인간의 모든 지식은 내적 관련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학문 사이에 허다한 이유로 설정되어 있는 구분은 자타의 서로 범접할 수 없는 장벽으로 보아서서는 아니된다.

...역사학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활동을 다룬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자료가 매우 광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다른 영역에 대해 여러가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 대한 論究가 그만큼 더 필요하다.<sup>10)</sup>

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여기 언급하고 있는 여러 학문 분야는 다분히 보조과학으로 인식된다는 한계가 있다.

8) M. J. Horn, 앞책 pp.3~6.

9) 앞책, Preface. 著者は 복식관련 학문분야로 1. 인류학, 2. 역사학, 3. 심리학, 4. 사회학, 5. 예술학, 6. 물리학, 7. 생리학, 8. 해부학, 9. 경제학 등을 예시하고 있다.

10) E. Bernheim, *Einleitung in die Geschichtswissenschaft*, 朴光淳(역), 「역사학 입문」, (서울: 범우사, 1985), p.72

그러나 새로운 역사학은 학문간 교류(inter-disciplinary)가 그 방법론의 출발점이나 다름없다. 인접과학의 이론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그 이론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분석·해석하며,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그 이론들을 재검증하기도 한다. 이 때의 인접과학은 분석과 해석을 위한 틀(frame of reference)이 되기 때문에, 역사학과 인접과학과의 새로운 종합, 제휴가 강조된다.

복식사에서, 사회과학과 역사과학의 접점에 위치한다는 그 특성에 비추어 더욱, 위의 새로운 方法論은 십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복식사가 역사의 한 分科인 이상, 사회과학을 “역사의 새로운 동맹자”(the new allies of history)로 규정했던 J. H. Robinson의 다음 말은 복식사에서도 타당할 수밖에 없다.

역사학이 발전하려면 역사학을 고립된 학문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모든 과학은 언제나 다른 과학과 상호의존 관계에 있다. 모든 과학은 다른 과학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끌어들이고 있고,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발전의 기회를 얻고 있다.<sup>11)</sup>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복식사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복식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역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 많은 보조·인접과학의 성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종합할 것인가 하는 方法論 상의 어려운 문제를 안게 된다. 그만큼 복식사 연구자의 부담 또한 클 수밖에 없다. 學際的 연구 視野를 그만큼 넓혀야 하기 때문이다.

### Ⅲ. 服飾史의 史料

역사 연구는 실증적이어야 한다. 확실한 史料에 근거하여, 지나간 사실 res gestae를 인식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역사적 方法이다. 역사학의 한 분과인 복식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복식사의 方法論 논의는 史料에 관한 논의로 집약이 된다. 이 점은 고전적인 實證史學과 다를 것이 없다. E. Bernheim은 이를 ① 史料學(Quellenkunde) ② 사료 비판(Kritik) ③ 해석(Aufassung) ④ 역사 서술(Darstellung)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sup>12)</sup>

이것은 역사 연구의 진행 순서와도 일치하는 설명으로, 요컨대 史料의 수집과 정리, 엄격한 고증이 역사 연구의 기초라는 얘기가 된다. 이는 歷史觀에 관계없이 모든 역사 과학에 공통된 진리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복식사에 접근하건, 史料의 一般理論에 대한 方法論의 이해가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史料는 ‘과거의 흔적’<sup>13)</sup>이며, ‘역사의 증거품’<sup>14)</sup>이다. 우리는 이들을 통하여 res gestae를 인식한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과거의 흔적’이나, ‘증거품’이 남아있지 않게 되면, 과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사료가 없으면 역사도 없다.”<sup>15)</sup> 한국 복식사의 史料가 적다는 한탄이 이警句와 통한다.

그러나 史料 자체가 역사 연구의 대상은 아니다. 그것은 연구의 소재일 뿐이다. 예를 들어, 史料는 과

11) J. H. Robinson, *The New History*, (New York : McMillan, 1912)

12) E. Bernheim, 앞책 p.103.

13) 梁乘祐, 「歷史의 方法」, (서울 : 민음사, 1988), p.16.

14) 金基雄, 「歷史學 概論」, (서울 : 정음사, 1968), p.86.

15) Ch. Langlois et Ch. Seignobos, *Introduction aux Etudes Historiques*, (Paris, 1905), p.17.

거울 비추는 거울이다.<sup>16)</sup> 역사 연구의 대상은 거울에 비친 영상이지 거울 자체가 아니다. 거울 자체는 역사 연구의 方法論的 검토 대상일 뿐이다.

또 다른 비유는 역사 연구를 음식 만들기(cooking)와 같다고 한다.<sup>17)</sup> 史料는 바로 음식의 재료와 같다는 것이다. 좋은 재료를 골라서 잘 배합하고, 잘 조리를 해야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가 있다.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숙수(cook)의 솜씨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진다는 우리의 日常的인 경험도 이 비유의 함축이다. 史料를 그냥 나열했다고 해서, 역사 연구가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비유를 좀 더 부연한다면, 솜씨 좋은 숙수가 음식 재료를 잘 알 듯, 역사 연구자는 사료에 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 어떤 것이 사료로 될 수 있는지를 알고 그 소재를 탐색하여 이를 수집·정리하며, 史料 특성에 따라 史料 다루는 技術的인 측면에도 익숙해야 한다. 이런 바탕이 튼튼하다면, 낡은 史料를 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드러낼 수도 있으며, 같은 史料에 새로운 方法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해석을 시도할 수도 있다.<sup>18)</sup> 이를 위하여 史料를 선택, 관찰하는 능력-史眼,<sup>19)</sup> 역사를 보는 통찰력-史識<sup>20)</sup>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연구 方法이 옳을 때, 사료는 “마르지 않는 샘”<sup>21)</sup>이 된다. 사료를 독일어로 Quelle(우물, 源泉), 영어로 source(根源, 源泉)라고 하는 뜻이 여기 있다. 그리하여 우리들 연구자는 史料에 관한 바른 인식과 지식, 그리고 史料에서 사실을 끌어내는 능동적인 자세<sup>22)</sup>를 요구받는다. 方法論의 끊임없는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성찰의 출발점은 앞에서 잠시 언급한 史料의 一般理論이며, 이를 바탕 삼아 다음으로 생각할 것이, 卽物的이라고 할 정도로 實證史料 중심일 수밖에 없는 복식사의 특성이다. 사료는 무한에 가까울 만큼 종류가 많고<sup>23)</sup> 이를 연구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지만,<sup>24)</sup> 복식사는 文獻이나 典故만이 아니라, 實測, 또는 視覺的인 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實物 고증이 있어야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예를 들자면, 朝鮮 시대 여러 定例와 儀軌에 “腋注音”이란 옷이 나온다. 文獻考證만으로는 이것이 철릭과 일습을 이루는 받침 옷, 겨드랑이(腋)에 주름(注音)이 있는 옷이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그러나 1979년에 이르러 “腋注音”이라 여겨지는 옷이 출토됨으로써, 그 구체적인 形制가 밝혀졌다. 實物조사에 의하면 이 옷은 무릎 댄 長衣로 겨드랑이에 줄음이 있다. 나는 1977년 “嘉禮都監義軌의 服飾연구”(「服飾」vol. 1)에서 “腋注音”에 언급했다가, 그 얼마 뒤 출토품을 보고 나서 복식사의 文獻考證에는 한계가 있음을 실감했던 것이다.

이처럼 복식사에서는 遺物考證이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 점 복식사는 美術史와 상통한다. 미술 작품 없는 美術史는 아예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美術에 관한 다음 인용은 복식사 연구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16) 車 河淳, 「歷史의 本質과 認識」, (서울: 학연사, 1988), p.67.

17) 李 如星, 「朝鮮服飾考」, (서울: 백양사, 1947), p.30.

18) 梁 秉祐, 앞책, p.194.

19) 朴 成壽, 앞책, p.255 참조.

20) 杜 維運, 「歷史研究方法論」, 權 重達 (역) 증보신판(서울: 일조각, 1990), p.26 참조.

21) 梁 秉祐, 앞책, p.194.

22) M. Bloch, *Apologie pour l'Histoire ou Metier d'Historien*, (Paris: 1961) p.26.

23) 李 如星, 앞책, p.129.

24) E. Bernheim, 앞책, p.103.

먼저 훌륭한 예술작품을 . 늘 다시 보는 것이 중요하다. ...文獻을 이해하기 위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하여 책을 읽는 것이다.<sup>25)</sup>

요컨대, 복식사에 맞는 方法論, 복식사에 맞는 史料學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하여,

1. 개개 복식의 구체적인 양식과 세부형태,
2. 복식을 착용한 용태와 그 심미적 효과,
3. 복식의 재질 등 경제·사회적인 측면,
4. 그 배경이 되는 정치, 사회 구조와 습속

등을 규명함으로써, 복식사는 제기능을 다할 수가 있다. 이 점 역시 복식사 연구자에게는 무거운 짐이 된다. 그런 만큼, 복식사료를 수습·정리하고 바로 해석하는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연구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새롭고 세련된 방법의 끊임없는 모색 또한 불가결함을 절감하게 된다.

#### IV. 服飾史의 解釋-1.

앞에서 언급했듯, 복식사는 實物考證이 중요하다. 이 때의 고증은 정밀한 관측과 정확한 실측으로 이루어진다. 그 낱말의 결과를 時系列에 따라 배열하고 설명하는 것이 복식사의 서술이다.

그러나 복식사의 方法이 이것으로 그친다면, 복식사의 視野가 좁아져서 복식사 전체의 흐름, 정치, 경제, 사회 등 문화 總體와 동떨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史料의 해석 (Aufassung)이다. E. H. Carr에 의하면 이 해석이야말로 “역사의 생명”<sup>26)</sup>이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란 그의 말대로, 역사란 “역사가와 사료의 대화”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sup>27)</sup>

이때 史料는 證人, 역사가는 質問者로 비유된다. ‘역사가와 史料의 대화’는 말하자면 일종의 質疑應答이다. 證人은 質問에 따라 대답할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가 먼저 할 일은 M. Bloch가 말한 質問表(une questionnaire)의 작성이다.

그렇다면 한국 복식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어떤 質問表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한국 복식사의 史料가 적을수록, 우리는 그 적은 史料에서 더 많은 진술을 얻어 낼 수 있는 質問表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한국 복식사의 方法을 생각할 때, 제기되는 또 다른 과제다.

이 과제는, 史料의 一般理論을 넘어서, 한국 복식사를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을 요구한다고 할 수가 있다. 이 점 역시 논의는 여러 갈래일 수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그 중 몇 가지만을 試論삼아 거론한다.

그 첫째는 比較 또는 比較史的 관점이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요체는 다음과 같다.

25) P. Kirn, *Einführung in die Geschichtswissenschaft*, (Sammlung Goshen, 1972), p.40.

26) E. H. Carr, *What is History?*, (London, 1961), 黃文秀(譯)「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범우사, 1984), p.49.

27) 앞책, p.51.

역사학은 ...과거의 사실을 (모두 재생할 수가 없으므로-필자) 특정적으로 재생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사실을 특정적으로 재생한다는 것은 그 사실을 다른 시대 또는 다른 사회의 비슷한 사실과 비교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sup>28)</sup>

어느 특정 국가의 역사를 인식하기 위한 노력에서 ...比較史의인 인식은 이미 받아들여진 역사적인 설명에 대하여 개략적이거나 새로운 질문까지도 유도할 수가 있다.<sup>29)</sup>

그렇기 때문에 M. Bloch가 比較史學을 제창하고, 그를 위한 체계적인 方法論을 제시한 것<sup>30)</sup>을 역사 이론의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에 의하면 “比較한다”는 것은,

...하나 또는 약간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둘 이상의 현상들을 추려내, 이들의 발전과정을 밝히고, 서로 유사한 점들과 서로 다른 점들을 확인하여, 가능한 그 유사점과 상이점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比較는 시간적으로 떨어진 현상간의 通時的 비교도 가능하고, 공간적으로 떨어진 현상간의 共時的 비교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M. Bloch는 시간적·공간적으로 아주 떨어져 있어서 상호간의 경향이나 공통된 기원으로는 그 유사성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의 比較와 “인접한 동시대의 사회”들 간의 比較가 모두 유용함을 지적하고 있다. 굳이 나누어 생각한다면, 복식학에서는 前者의 비교가 더 많은 경우에 유효한 반면, 복식사, 특히 한국 복식사의 일차적인 관심이 後者 즉 東北亞 韓·中·日 복식의 比較에 있음은 당연하다.

이런 比較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복식, 우리 복식사의 특질을 보다 선명하게 밝힐 수 있음은 물론, 우리 복식사 연구의 視野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점 M. Bloch가, 比較史를 제창한 동기가 그때까지 民族史에 그쳤던 편협한 역사를 해방시키는데 있다고 한 점<sup>31)</sup>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또 比較史學的인 方法이 복식학과 복식사의 새로운 理論 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란 기대도 가능하다. 이 점 유럽과 아시아 7개국의 근대화 과정을 比較하여 큰 업적을 남긴 B. Moor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比較史的인 접근은 새로운 역사적 일반화로 유도하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성격은 일종의 유일한 知的 작업 과정으로 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단순히 흥미 있는 사례들의 무분별한 수집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 준다.<sup>32)</sup>

28) 全 海宗 (편), 「東北亞史의 比較研究」(서울: 일조각, 1983), 머리말.

29) B. Moor, Jr., *Social Origin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oston: Beacon Press), 진 덕규(역)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서울: 까치, 1985), 머리말 p.3.

30) M. Bloch, “Pour une Histoire Comparee des Societes Europeenes”, *Revue de Synthese Historique* 46(1928) pp.15~50. 이하의 인용과 설명 모두 같음.

31) M. Bloch, 앞글 p.49.

32) 주 29와 같음.



## V. 服飾史의 解釋-2.

우리가 두 번째 논의할 복식사 해석의 새로운 관점은 形態論과 樣式論의 상관이다.  
比較 文明史를 시도했던 인류학자 A. Kroeber는,

거의 모든 문명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일련의 특징적인 기본 양식을 발달시키고, 그 후에는 그 문명이 존속하는 한 그들 양식을 고집 하는 듯하다.<sup>33)</sup>

고 말했다. 양식이야말로 문명과 문명을 구별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 양식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그 문명의 특성을 밝힐 수가 있다는 것이다.<sup>34)</sup>

이같은 양식의 특성은 복식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여러 복식의 특징은 일목요연하기 때문에 다른 양식비교의 손쉬운 지표가 된다. 比較복식사를 시도할 때 착안해야 할 것이 이 樣式論의 관점일 것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예컨대, 우리 옷의 고유 양식을 北方系, 上衣下袴라고 할 때, 이 기본양식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국복식사의 일차적인 관심사가 됨은 물론이겠으나, 上下가 連綴된 深衣 양식의 중국 옷, 기모노 양식의 일본 옷과 우리 옷을 특징적으로 類別化하며, 이들 서로 다른 양식의 옷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서로 교섭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변천해 왔는지를 밝히는 樣式論의 접근이 韓·中·日 각국 복식사의 특질을 밝히고, 나아가 이들 세 나라를 포괄하는 보다 광역의 복식사를 가능케 하리라는 기대도 가져 볼 수 있다는 것이다.

Kroeber는 문명의 양식을 거론함에 있어서 복식은 실측에 의한 계량적인 양식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比較文明史의 선행연구로 “Three Centuries of Women’s Dress Fashion : A Quantitative Analysis”<sup>35)</sup>를 발표했다.

이를 위하여 그는 유럽 여성복 양식의 이상형(ideal type)을 상정하고 도판의 계측결과가 이 이상형에서 얼마나 이탈했는지, 標準偏差를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복식 양식에는 ① 기간이 짧은 유행과는 다른 장기 유동(long-term drift)이 있다, ② 그 유동은 전쟁 등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심하다, ③ 양식의 유동이 시작되면, 시계 추처럼 극단에 이르러서야 反轉되며 그 주기는 100년쯤 된다는, 양식 변동의 法則을 제시했다.

이는 복식사에 樣式論의 접근을 시도한 획기적인 사례로서, ① 복식 변동을 다른 문화요소들과 연관시킨 총체적 시각, ② 비교측정(comparative measurement)에 의한 그림 史料의 분석, ③ 수학적 조작을 통한 복식 변동의 계량적 분석 등 복식사 연구의 새로운 方法論을 선보인 것이다.

물론 이 연구를 한국복식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을지는 좀 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연구 사례가 몇 가지 중요한 方法論的인 시사를 주고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다. 이 점은 내 경험으로도 확인이 된다. 나는 1986년에 『傳統 韓服의 美的 考察』(『論叢』 제 51집)을 쓰면서 Kroeber의 비교 측정 기법을

33) A. Kroeber, *An Anthropologist Looks at History*, (New York, 1963), pp.14~15.

34) A. Kroeber, *Style and Civilization*, 1957, pp.70~

35) *Anthropological Review* vol. 2, 1940 所收

원용했었다. 여러 그림 사료에 나타난 우리 옷의 여러 가지 着裝 모습을 분석함에 있어서, 실측 결과를 着裝 모습의 上下比例(proportion)로 計量化함으로써, 단순비교가 어려운 그림사료의 비교가 가능했고, 이를 Design 이론에 따라 검증·평가하는 작업이 가능했다. 이 경험에 비추어, 史料가 충분하고 方法論的 조작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 옷의 특성을 더욱 설득력 있게 밝힐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또 한가지 논의할 것은, 복식현상에 나타나는 普遍性和 特殊性의 문제다.

이 논의는, 복식에 보편성(universality)와 특수성(particularity)이 공존한다는 데서 시발된다.

복식에 보편성과 특수성의 양면이 있음은 긴 설명이 필요없다. 넓은 의미의 복식이 없는 문화가 없는 반면, 그 모양이나 기능이 지역에 따라 민족에 따라 매우 다양함은 잠시의 관광여행으로도 확인이 된다. 그러나 복식의 이와 같은 양면성은 복식사 연구에서 피치 못할 문제를 제기한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복식에 보편성이 있다면 복식사에도 보편적인 역사 법칙이 작용한다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세계복식사 말고, 한국복식사, 중국복식사가 따로 있어야 할 까닭은 무엇인가.<sup>36)</sup> 그러나 한국 복식 전통에는 너무나 뚜렷한 독자성이 있다. 이웃 中國이나 日本과는 분명히 차별된다. 그 독자성과 차별성이 한국복식사의 주된 관심사다. 그것은 세계사의 보편성만으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남는다. 지금까지 한국복식사는 그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웃 민족 복식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거나, 한국복식의 우수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복식사의 보편성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던가. 이런 반성 위에서 역사의 普遍性和 差別性的 方法論的 성찰이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옷의 고유 양식을 말할 때, 그 上衣下袴는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北 Asia를 거쳐 北 Europe까지, 시기적으로는 舊石器시대이래 현대 양복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된 양식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적어도 自北至南한 우리민족 복식의 내력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고, 나아가 이 고유 양식을 수천년 동안 고수해온 한국복식사의 특수성을 의미 있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 경우 上衣下袴를 양식론적으로 관찰하는 方法이 유용할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요약하자면, 복식사에 보편적인 여러 법칙이 작용함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 역사 법칙들이 역사적인 조건-풍토와 사회·문화 특성에 따라 결합, 전개되는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한국복식사의 立地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복식사의 구체적인 복식현상을 확인·정리함으로써 보편적인 역사 법칙의 한국적인 전개 양상과, 그것이 무엇에 연유하는지를 밝혀야 하고, 다시 그것은 보편적인 역사 법칙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가 있어야 우리 연구가 온전하다고 할 수가 있다.<sup>37)</sup>

예컨대 우리 옷의 특성을 그 服飾美에서 찾는 경우, 그 색채가 은은하다든가, 선이 세련됐다든가 하는 感性的인 표현이나, 외국사람들의 異國趣味(exoticism)에서 나오는 評語를 인용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印象批評이지 學究的이라 할 수는 없다.

이 점 다음 引用은 우리에게 方法論的인 시사를 준다.

36) 이 부분의 논의는 다음 論述에 주로 의거했다.

李基白,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梨花史學研究』 6·7합집(1973)  
李基白, 「韓國史新論」 신수판(1993) 중 序章 제2절의 「보편성과 특수성」  
車河淳, 「民族文化와 普遍文化」, 『한국사 시민강좌』(1988)  
姜普哲, 「韓國史의 보편성과 특수성」, 『韓國史 研究入門』(1981)

37) 李基白, 앞 글, p.10.

한복은 몸에 끼지 않아서 동작에 충분한 여유가 있고 옷의 풍성함은 상당한 量感과 무게를 준다. ...색동 소매의 水平 줄무늬들은 소매의 길이를 상쇄하고 있다. 치마와 소매의 비례는 明과 暗, 문양과 無地の 윤택한 대비를 낳는다. 量感의 대조 역시 잘 배분이 되어서 균형되고 있다. 소매의 리듬 있는 줄무늬의 반복이 어깨 부위의 강조를 돕는다. 부드러운 재질은 그 줄무늬 옷 가장자리의 직선감을 상쇄한다. 그 전체적인 효과는 우아한 貞淑性 그 자체다.<sup>38)</sup>

이 짧은 글 속에 디자인 理論의 거의 모든 요소와 원리, 그들의 美的 효과가 다 들어 있다. 보편성의 척도를 가지고 우리 옷의 美的 특성을, 현대에도 통용될 수 있는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옷의 우수성만을 강조하는 自民族중심주의(ethnocentrism)는 外來 복식의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他文化중심주의나 事大주의 모두 배격해야 한다. 요컨대 복식문화에서도 문화 상대주의(relativism), “역사적 보편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한국이라는 “역사적 個體에 고유한 특수성”을 파악하는 안목이 있어야 겠다는 것이다.

## VI. 結 言

우리 복식사의 체계적인 기술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李如星은 그가 생각한 복식사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말했다.

복식의 연구가 물체의 연구이기는 하나 ...역사 기록의 功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물체는 보일지언정 말을 못하고, 역사는 보이지는 않음망정 능히 말을 한다. 보이는 물체를 취하고, 말하는 역사를 얻어서 비로소 연구는 원활히 진행되는 것이다.<sup>39)</sup>

참 옳은 말이다. 복식사의 기본은 실물고증과 문헌 고증을 병행하는 데에 있다. 굳이 덧붙인다면, 일반 역사학에 비하여, 복식사는 실물고증의 비중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식사를 하자면, 먼저 복식 유물 다루기를 基本技로 익혀야 한다. 유물을 실측하고 그 결과를 製圖와 sketch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야 한다.

내 경험으로 말해도, 복식사 연구는 실물조사로 시작해서 실물조사로 점철된 것이었다. 첫 논문을 쓰기 위하여 국립 박물관 소장품 100여점과 충북대학 박물관 소장품 30여점 등을 실측 조사하던 일이 어제 같은데, 그 뒤에도 고려 대학교 박물관 소장 복식 유품 500여점, 이화여대 소장품 600여점을 실측·정리하여 도록으로 작성하는 등의 작업이 끊임 없었던 것이다.<sup>40)</sup>

이런 경험을 토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後學들에게 실물고증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아쉬움은 실물

38) M. Davis, Visual Design in Dress (New Jersey : Prentice Hall, 1980), p.287.

39) 李如星, 앞 책, p.33.

40) 高麗大 소장품은 李京子 「服飾類 名品圖錄」(서울 : 高麗大學校 박물관, 1990) 참조

을 조사하는 절차와 구체적인 技法을 설명하는 편람(manual) 같은 것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우리 학계에서 이런 편람을 만든다면, 복식사 교육에 크게 보탬이 되리라 생각도 하게 된다.

또한 실물고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미국에서 경험한 복식 교육의 한 측면을 적어두었으면 한다.

미국의 복식사 교육은 교과서를 중심한 교육과 실물교육으로 대별된다. New York의 명문 Pratt Institute of Fashion Design의 경우 복식사의 실물교육은 Metropolitan Museum of Modern Art의 Costume Institute에서 이루어진다. Costume Institute는 학교측 요청에 따라, 필요한 item을 제공하며, 학생들은 그 중 몇 점을 골라 실측하고 전개도를 그리며 채색으로 sketch한 뒤, 문헌을 조사하여 report를 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별, 유형별 복식이 과제로 주어지며, 학기말에는 20세기 유명 designer들의 작품인 'Designers Collection'이 자료로 제공된다. 구체적인 실물 취급의 技法과 특정 복식에 대한 해설이 따름은 물론이다. 실물 중심의 복식사 교육이 복식학, 복식 design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예전에는 복식사 교육이 강의 중심의 編年史의 인 것이었으나, 전문 직업인을 키운다는 교육 목표가 정립됨에 따라 이를 탈피했다는 것이었다.<sup>41)</sup> 우리 복식사 교육에서도 참고할만하다는 생각과 함께, 이런 식의 교육을 가능케 할 collection과 시설에 대한 아쉬움이 간절했던 기억이 새롭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 학계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실물 중심의 복식사 연구와 복식사 교육이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복식사의 방법론 논의가 여기에서 그칠 수 없을 또한 당연하다. 자칫 실물 중심의 복식사가 유물 하나 하나, 또는 복식 각 부분의 세부적인 形態論에 빠진다면, 복식사 전체의 흐름이 視野 밖으로 밀려날 우려가 없지 않다. 그 결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지적이 나오게 된다.

대부분의 연구 논문에는 문제점의 제시가 없다. 다만 “×××에 대한 고찰”이라는 표현에서와 같이 설명식이 매우 많았다. 그리고 ...문제의 제기가 없으니, 결론은 본론을 요약하는 글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sup>42)</sup>

이 말은 우리 나라 역사학 전반을 향한 비판이지만, 이 지적이 한국 복식사의 현단계에도 절실함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앞에서 언급한 바, 史料의 一般理論에서 말하는 “해석”의 중요성이다. 실물 중심의 단단한 기반 위에서, 새로운 “해석의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언급한 比較와 比較史, 形態論과 樣式論, 普遍性과 特殊性의 논의는 그런 모색의 일단일 뿐이다.

그런 만큼, 위에 열거한 것 말고도,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論點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일반 사회 과학의 이론을 어떻게 복식사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언급을 생략했으나, 사회 과학과 역사 과학의 새로운 종합을 뜻하는 社會史 또는 歷史 社會學 등 新역사의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서 얻어지는 하나의 결론은 지금의 우리 복식사는 그 연구의 視野를 획기적으로 넓힐 것

41) 李京子, 『服飾教育과 服飾史』 『韓國服飾史論』 (서울: 일지사, 1983), pp.347-350.

42) 康宇哲, 『역사는 왜 배우는가』 (서울: 교학사, 1992) pp.69~70.

을 요청 받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보조과학·인접과학과 관련되는 복식사의 특성이 學際的인 감각과 소양을, 韓半島에 국한할 수 없는 한국 복식사의 연구 과제들이 우리에게 國際的인 인식을 요구한다. 이는 복식사 연구의 學際的, 國際的 협력이 있어야 함을 아울러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 연구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 우리 학계 전체로서도, 이에 대응할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글을 마치며, 나를 이끌어주신 선생님과 선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오랜 세월 同學의 기쁨을 나누었던 동료들, 그리고 모든 후배들에게도 뜨거운 인사를 보내며, 모두의 학문적 성취를 축원해 마지 않는다.

## ABSTRACT

### On the Method of History of Korean Costum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a new methodology for the historiography of Korean costumes. In particular, I focus on the possibility for systematic, historical methods appropriate for the history of Korean costumes.

First, I characterize the general historiography of costumes as involving two aspects—one as the social science and the other as the historical science(Geschichteswissenschaft). My contention is that any historical study of costume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intersection of social and historical studies, and their entangling relations with many a neighboring field of sciences. It requires in other word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hat combines various methodologies of social sciences as well as those of history.

Second, I present an overall review of the historical methodology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Quellenkunde” of orthodox historiography.

Building on the review, third, I pay attention to recent innovations in historical methodologies, such as “New History” that draws on history, sociology and social history, and their applicability to the history of Korean costumes. In this regards, I adress among others, the following theoretical perspectives :

- 1) comparioson and comparative history,
- 2) the formative and paternal approaches toward the history of costume,
- 3) particulartiy and universality of Korean costume.

I conclude that the history of Korean costumes should broaden its theoretical horizon in order to accomodate a wider range of research agenda, including costumes of neighboring cultures, while remaining sensitive to new theories and methods of the neighboring social historical sciences. For this purpose, it is emphasized that a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mong researchers of the region, as well as that across the different disciplinnary boundaries, is indispensable for successful studies that can embrace diverse fields and areas.